

기획조사

부산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 조사

2021. 8.



부산상공회의소

목차

1. 부산지역 기업 ESG등급 현황	1
· ESG평가기업 현황	1
· 부산지역 기업 ESG등급 현황	2
· 주요도시 대비 비교	3
· 종합	5
2. 부산지역 ESG 준비실태 조사 결과	6
· ESG경영에 대한 관심	6
· ESG경영전략 수립현황	7
· ESG관련 담당 조직 보유현황	9
· ESG 관심 분야	9
· ESG경영 도입관련 주요 애로사항	9
3. 시사점	10
* 참고자료	12

〈조사개요〉

1. 조사명

- 부산 기업 ESG 경영 현황 및 인식 조사

2. 조사목적

- 부산지역 기업 ESG 현황 및 인식 파악

3. 조사대상

- 부산지역 상장사, 매출 1,000억 원 이상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주요 기업 200개체

4. 조사방법

- 기초 자료 분석(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7.1.자 수집)
- 실태조사 설문(자기 기입식)

5. 조사내용

- 부산지역 기업 ESG등급 현황
- 실태 및 인식 파악 등

6. 조사기간

- 2021.7.1.~8.31.

1 부산지역 기업 ESG등급 현황

1. ESG평가 기업 현황

- 주요도시 중 ESG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부분은 서울에 쏠림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평가¹⁾를 받은 기업체수를 주요도시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34개사(7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산 40개사(7.1%), 인천 27개사(4.8%), 대구 23개사(4.1%), 울산 17개사(3.0%), 대전 15개사(2.7%), 광주 9개사(1.6%) 순
 - 이는 한국기업지배구조의 평가대상²⁾ 중 코스피 상장사가 주요 대상이며 코스피 상장사가 대부분 서울, 경기 등에 본사 소재지가 밀집해 있어 이와 같이 나타남

주요도시 ESG평가기업 현황



*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등급평가 자료, 2020년 기준)

1) ESG 평가 및 등급에 대한 내용은 후면 참고자료를 참조
2) ESG 평가 대상에 대한 내용은 후면 참고자료를 참조

2. 부산지역 기업 ESG등급 현황

□ 지역기업은 취약한 수준을 나타내는 C등급에 가장 많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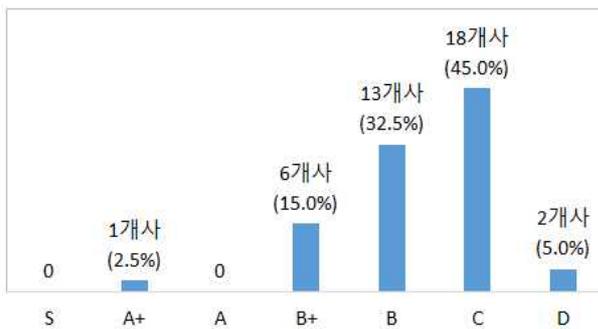
○ ESG평가를 받은 지역기업 40개사 중 A+등급을 받은 기업은 1개사(2.0%), B+등급 6개사(15.0%), B등급 13개사(32.5%), C등급 18개사(45.0%), D등급 2개사(5.0%)임

- 우수 수준인 A+등급은 BNK금융지주, 양호 수준인 B+등급은 화승코퍼레이션, 화승엔터프라이즈, 동일고무벨트, SNT모티브, 세방, 인터지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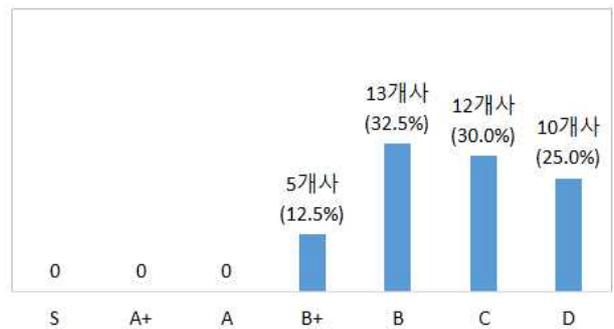
○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환경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취약한 수준을 나타내는 C, D 등급의 비율이 55.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이는 평가대상기업 중 제조업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관법, 탄소중립 등 늘어나는 환경규제에 제조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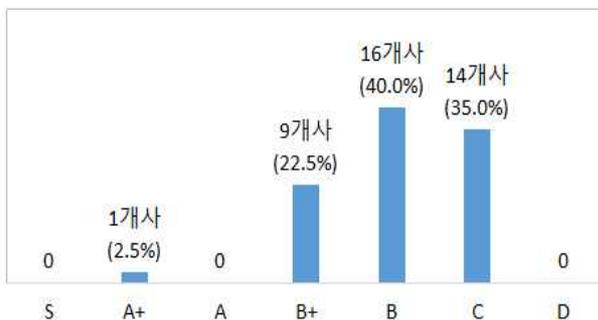
ESG종합 등급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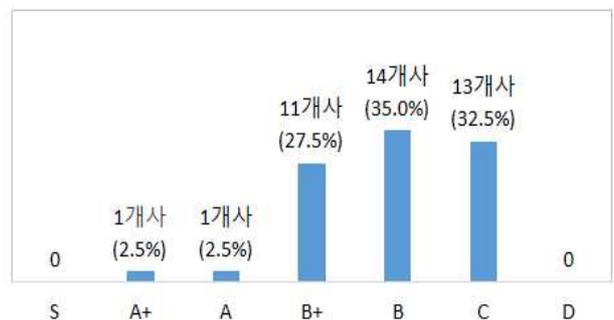
E(환경) 등급별 현황



S(사회) 등급별 현황



G(지배구조) 등급별 현황



*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등급평가 자료, 2020년 기준)

3. 주요도시 대비 비교

□ 부산은 우수 등급의 비중이 낮고 취약 등급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

○ 부산의 우수(A이상) 등급 비중은 2.5%로 주요도시 중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난 반면, 취약 등급의 비중은 광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주요도시 ESG 종합 등급별 비중 >

순위	주요도시	우수 (A이상)	주요도시	양호, 보통 (B+ ~ B)	주요도시	취약 (C이하)
1	서울	15.0%	대구	69.6%	광주	66.7%
2	울산	11.8%	대전	53.3%	울산	52.9%
3	대구	8.7%	서울	53.0%	부산	50.0%
4	대전	6.7%	인천	48.1%	인천	48.1%
5	인천	3.7%	부산	47.5%	대전	40.0%
6	부산	2.5%	울산	35.3%	서울	32.0%
7	광주	0.0%	광주	33.3%	대구	21.7%

*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등급평가 자료, 2020년 기준)

* 참고: 각 주요도시별 ESG 종합 평가 총기업체수 대비 등급별 기업체수 비중

□ 환경분야의 경우 우수등급의 기업은 없으나 주요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편임

○ 부산은 대전, 광주와 함께 우수등급의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등급의 비중은 55.0%로 광주, 대전, 서울, 인천보다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 내 ESG 중 환경분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분야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타 주요도시의 기업들도 환경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 주요도시 ESG 환경분야 등급별 비중 >

순위	주요도시	우수 (A이상)	주요도시	양호, 보통 (B+ ~ B)	주요도시	취약 (C이하)
1	울산	11.8%	울산	52.9%	광주	88.9%
2	서울	10.8%	대구	52.2%	대전	73.3%
3	대구	4.3%	부산	45.0%	서울	56.5%
4	인천	3.7%	인천	40.7%	인천	55.6%
5	부산, 대전, 광주	0.0%	서울	32.7%	부산	55.0%
6			대전	26.7%	대구	43.5%
7			광주	11.1%	울산	35.3%

*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등급평가 자료, 2020년 기준)

* 참고: 각 주요도시별 ESG 환경부문 평가 총기업체수 대비 등급별 기업체수 비중

□ 사회분야의 우수등급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며 취약등급 비중 역시 다소 높은 편

○ 부산의 우수등급 비중은 2.5%로 주요도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취약등급의 비중은 35.0%로 광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노사관계, 협력사 거래관계, 사회공헌활동 등에서 부산의 기업이 주요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주요도시 ESG 사회분야 등급별 비중 >

순위	주요도시	우수 (A이상)	주요도시	양호, 보통 (B+ ~ B)	주요도시	취약 (C이하)
1	서울	21.7%	대구	78.3%	광주	77.8%
2	울산	17.6%	대전	66.7%	울산	35.3%
3	광주	11.1%	인천	63.0%	부산	35.0%
4	대구	8.7%	부산	62.5%	인천	29.6%
5	인천	7.4%	서울	60.1%	대전	26.7%
6	대전	6.7%	울산	47.1%	서울	18.2%
7	부산	2.5%	광주	11.1%	대구	13.0%

*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등급평가 자료, 2020년 기준)

* 참고: 각 주요도시별 ESG 사회부문 평가 총기업체수 대비 등급별 기업체수 비중

- 지배구조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등급 비중이 다소 높은 편
 - 부산의 취약등급 비중이 32.5%로 광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다만 우수등급 비중은 주요도시 중 중간수준으로 지배구조분야의 우수등급 비중이 타분야 우수등급 비중과 비교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도시 ESG 지배구조분야 등급별 비중 >

순위	주요도시	우수 (A이상)	주요도시	양호, 보통 (B+ ~ B)	주요도시	취약 (C이하)
1	서울	17.7%	대구	78.3%	광주	55.6%
2	울산	11.8%	인천	77.8%	울산	52.9%
3	대전	6.7%	대전	73.3%	부산	32.5%
4	부산	5.0%	부산	62.5%	서울	20.0%
5	대구	4.3%	서울	62.2%	대전	20.0%
6	인천	3.7%	광주	44.4%	인천	18.5%
7	광주	0.0%	울산	35.3%	대구	17.4%

*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등급평가 자료, 2020년 기준)

* 참고: 각 주요도시별 ESG 지배구조부문 평가 총기업체수 대비 등급별 기업체수 비중

4. 종합

- 부산은 ESG 평가에서 과반수 기업이 취약성을 나타냄. 또한 주요도시 중에서는 서울,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광주, 부산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로는 환경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도시 대비해서는 사회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음
- 다만, 이러한 평가대상 기업이 코스피 상장사 위주의 일부 기업에 대한 결과이다 보니 지역 기업의 전반적인 ESG 실태로 보기엔 무리가 있음. 따라서 상장사 및 매출 1000억 원 이상 지역기업에 대한 ESG 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함

2 부산지역 ESG 준비실태 조사 결과

1. ESG경영에 대한 관심

□ 응답업체의 1/3만 ESG경영에 대한 관심

- ESG경영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13.0%, 다소 높음 20.0%, 보통 41.0%, 다소 낮음 17.0%, 매우 낮음 9.0%로 ESG가 기업의 경영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지역기업의 관심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편임



□ 코스피 상장사는 과반수 이상 ESG경영에 대한 관심 높은 상황

- ESG경영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상장사 41.8%, 비상장사 26.3%로 상장사가 ESG경영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코스피 상장사의 56.5%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ESG 공시 의무가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제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짐

※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거래소 공시 의무화하고 있음. 이를 22년 자산 1조원 이상, 24년 자산 5천억원 이상, 26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
환경, 사회와 관련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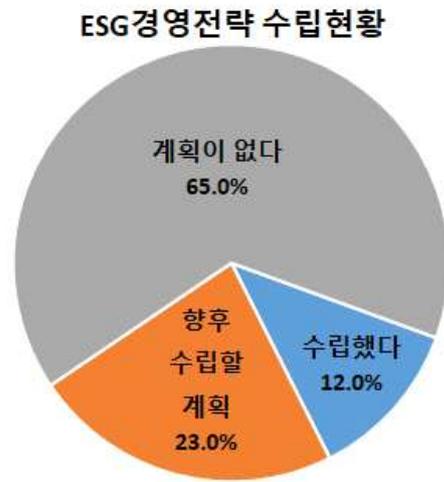
< 상장구분별 ESG경영 관심도 >

구분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다소 낮다	매우 낮다
상장사	20.9%	20.9%	39.5%	9.3%	9.3%
코스피	30.4%	26.1%	30.4%	8.7%	4.3%
코스닥	10.0%	15.0%	50.0%	10.0%	15.0%
비상장사	7.0%	19.3%	42.1%	22.8%	8.8%

2. ESG경영전략 수립현황

□ 응답업체의 65.0%가 ESG경영전략 수립계획이 없는 상황

○ 지역기업의 ESG경영전략 수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가 6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향후 수립할 계획 23.0%, 수립했다 12.0% 순임



□ 이는 ESG경영이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엔 시기상조라고 인식하기 때문

○ ESG경영전략을 수립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ESG경영이 대기업 위주 전략으로 중소기업엔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업체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제성이 없고 딱히 불이익이 없음 27.1%, 노력대비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음 23.5%, 일시적 경영 트렌드로 그칠 것으로 예상 17.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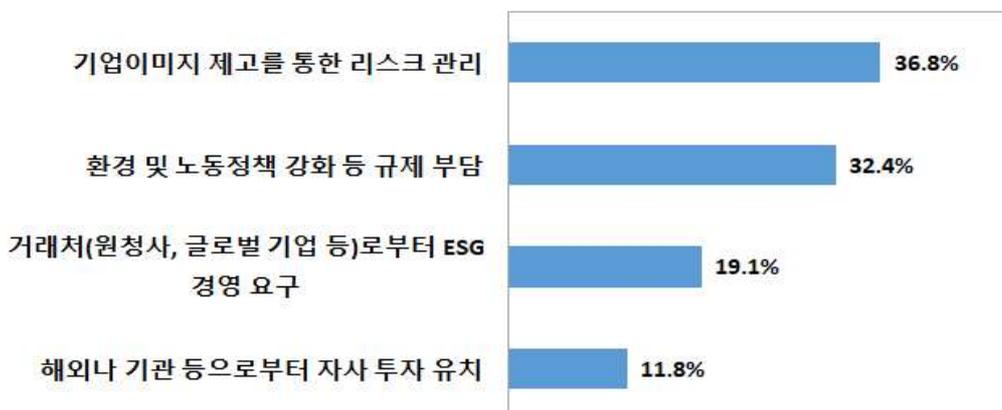
ESG경영전략 수립계획 없는 이유



□ 반면 ESG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는 리스크 관리와 규제 부담때문

- ESG경영전략을 수립했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3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 및 노동정책 강화 등 규제 부담 32.4%, 거래처로부터 ESG경영 요구 19.1%, 해외나 기관 등으로부터 자사 투자 유치 11.8% 순임
- 이는 지역기업이 ESG라는 새로운 경영 화두에 대해 리스크 해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큰 반면, 자사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대, 신사업 추진 등 ESG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인식은 다소 낮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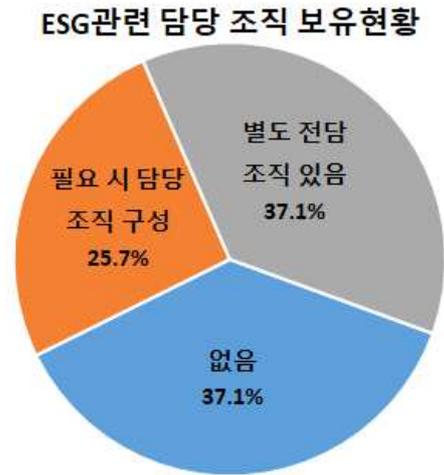
ESG경영전략 수립의 주된 사유



3. ESG관련 담당 조직 보유현황

□ 62.8%가 ESG업무를 위해 전담 조직 마련 및 담당 조직 구성

- ESG경영 전략을 수립했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ESG관련 담당 조직 마련현황을 조사한 결과 별도 전담 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없음 37.1%, 필요 시 담당조직 구성(TF 구성) 25.7% 순임



4. ESG 관심 분야

□ 응답업체의 71.0%가 E(환경)분야에 관심 많아

- ESG 중 지역기업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로는 E(환경)이 7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S(사회) 27.0%, G(지배구조) 2.0% 순임

- 이는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해 전세계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다양한 환경규제들이 도입됨에 따라 수출기업을 비롯해 내수위주의 기업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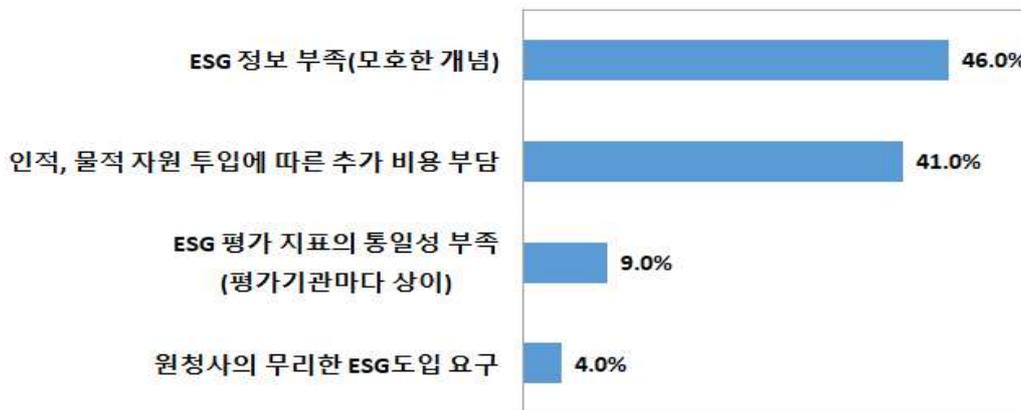


5. ESG경영 도입관련 주요 애로사항

□ ESG 정보 부족과 추가 비용 부담이 ESG경영 도입의 주요 걸림돌

- ESG경영을 도입하는데 있어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ESG 정보 부족을 응답한 업체가 4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적, 물적 자원 투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41.0%, ESG평가 지표의 통일성 부족 9.0%, 원청사의 무리한 ESG도입 요구 4.0% 순

ESG경영 도입 관련 주요 애로사항



3 시사점

□ ESG경영을 선택이 아닌 기업생존의 필수사항으로 인식 전환 필요

- ESG경영이 현재는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기업의 공급망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여서 향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경영 참여요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
- 또한 각종 금융기관에서 ESG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공공조달입찰 시 입찰기업의 ESG 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조달부문에서도 ESG의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처럼 ESG경영이 기업생존의 필수사항으로 변화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인식 전환 필요

□ 이를 위해 정부주도의 ESG경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력 지원과 대기업 중심의 ESG 상생경영 지원 병행 필요

- 정부 주도로 ESG경영에 대한 정보 및 가이드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전담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책 마련
- 또한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해 하달식 ESG경영요구를 지양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사의 ESG 컨설팅 및 점검 시스템 도입 등 협력모델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ESG를 리스크 해소 차원이 아닌 새로운 시장 경쟁력으로 활용 필요

- ESG경영이 강화되는 추세인만큼 향후에는 시장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 특히 경쟁사와 기술력이 비슷하다면 단가인하를 통한 출혈경쟁 대신 ESG 경쟁우위를 통한 거래처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ESG 평가 및 등급 개요〉

○ ESG 평가분야

- E(환경)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 S(사회)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 G(지배구조)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공시

○ ESG 평가대상 기준

대상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 코스닥 100 구성종목 - 코스닥 150 거버넌스 지수(KRX) 구성종목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 RI 펀드 자문서비스 제공기관 요청 회사 - 금융회사(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상장회사 - 특수목적법인 등 페이퍼 컴퍼니 -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

○ ESG 등급

S	A+	A	B+	B	C	D
탁월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취약	매우 취약

*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